산업통상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11.12.(목) 15:30 < 11.13.(금) 조간 > 배포 2026. 11. 12.(목)

산업부, 장관 주재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 개최

- 11.12일 장관주재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 개최 -

- 체코 원전사업을 위해 산업부의 관리·지원 및 팀코리아 협력 강화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1.12일(목) 서울청사에서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핵심 마일스톤인 '27.4월 건설허가 신청과 '29년 11월 착공을 달성하기 위한 팀코리아의 계획을 점검하고, 팀코리아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11월부터 추진된 산업부 장관·차관 주재 비상관리체제의 일환으로, 11.2일 차관 주재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에 이어서 팀코리아 전반의 추진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KPS㈜ 등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중인 모든 팀코리아 공기업이 참석했다. 팀코리아 참여기업은 체코 원전 계약체결('25.6월) 이후 16개월간 각자의 부문에서 역무를 수행하며 두코바니 원전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향후 체코 현지 인허가 신청 등 사업의 중요 마일스톤을 적기에 이행하기 위한 추진일정과 계획도 함께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팀코리아 참여기업은 금번 시공계약 협상종료(10.29) 이후 정부와 함께 흔들림 없고 빠른 위기대응 능력을 보여, 한국 원전의 경쟁력인 'On Time, On Budget'의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공동의 목표를 향한 '팀코리아 스피릿(Team Korea Sprits)'을 재정비하고 다시 결집해 나갈 각오를 다졌다.

회의 중 한수원은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라 대응이 필요한 업무를 ▲시공사 교체과정 중 업무 계획, ▲신규 시공사 선정 계획, ▲주요 마일스톤 달성 계획 등으로 나누어 필수 후속조치사항을 식별하고 진행상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시공사 교체과정 중 업무 계획'은 핵심 마일스톤인 '27.4월 건설허가 신청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설계·인허가, 부지정보 검증 및 숙소부지 마련으로 세분화하여 ▲한수원이 직접 수행 가능한 업무, ▲한수원과 기존에 계약한 체코 기업 활용, ▲신규계약 체결이 필요한 업무 등으로 확인하고, 각각의 업무별 주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사업이행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신규 시공사 선정'은 '27.7월 완료를 목표로 설정하고, 통상적인 공개경쟁입찰보다 짧은 기간내에 선정을 완료하는 동시에 국가계약법상 「종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여 공사수행 능력과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수원은 이를 위해 한전기술과 공동의 전담 TF를 구성하고, 신한울 3·4호기('23)의 입찰자료를 참고하며, 사전 설명회를 통해 참여조건을 상세히 알릴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은 "팀코리아의 신뢰와 협력을 지키고 한국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원전 공기업이 더 큰 책임감과 리더십을 가지도록 정부의 관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하며, "동 회의를 통해 신규시장에 신규노형으로 진출하는 경험을 기업간 공유하고, 정부가 행정적·외교적 지원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모색함으로써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코 정부와도 장관급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와 수시 면담, 국장급 주간회의 등 각급 협의채널을 적극 가동하여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두코바니 원전사업 정상추진에 대한 신뢰를 지켜나가고, 팀코리아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체코측에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2027년 7월 신규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공사 선정 전까지 한수원 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일부 역무를 직접 수행하는 한편, 업무 수행이 시급한 부대시설 설계 등은 별도 계약을 통해 필요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산업통상부의 정기적인 점검과 체코 정부, 발주사 및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25.12월 계약을 체결한 주기기 및 주요기자재 공급 등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되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균 한전기술 사장은 “‘25.12월 계약체결 후 두코바니 원전 설계 전담기관으로서 사업 착수 후 15개월 간 약 3천8백 여건의 설계문서를 적기에 제출 완료하였고, 체코 현지 엔지니어링사와 1차 설계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추가 계약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체코 법령 요건과 철저한 설계를 통해 5개월 후 예정인 건설허가 신청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전원자력연료 정창진 사장은 “핵연료 분야 담당 역무를 계획에 맞춰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과 6월에는 한전원자력연료 소속 전문가들이 발주사 대상 기술전수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고객 만족도를 한층 제고하였다.”고 언급했으며, 한전KPS 김홍연 사장은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인허가 승인을 위한 기술자료를 제출하는 등 체코측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40년간 축적된 국내외 정비경험을 바탕으로 체코 신규원전에서의 역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원전전략기획관 원전수출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동환 (044-203-5280)
		담당자	사무관	이수정 (044-203-528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